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6.04.22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유럽의회,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 2,000억 유로 배정을 포함하는 장기 예산 보고서 채택(4.16)

- 차기다년도재정계획(MFF)에 관한 보고서는 집행위의 제안보다 평균 10% 증액된 2,000억 유로를 제안하며, 이를 주요항목(안보, 국방, 경쟁력)에 균등히 배분할 것을 촉구(집행위가 제시한 1,750억 유로 대비 증가)

※ 한편 차기 EU 예산 내 R&I 지출을 주제로 한 유럽의회 행사에서 충분한 연구혁신 투자 없이는 인재유출과 미래 산업 경쟁력 상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됨

○ ERC, 2027년 공모부터 더 엄격한 지원 규정 도입 예정(4.16)

- 유럽연구위원회(ERC)는 지원서 수의 폭발적인 증가와 심사위원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자격 기간을 완화하고 재지원 제한을 강화

※ 현재 91개 평가 패널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며, 기존에는 패널당 50~150건을 처리했으나, 최근 일부 패널에서는 250건을 넘는 등 급격한 증가세 보임

- 주요 변화는 Starting·Consolidator 그랜트 자격 기간(Starting은 박사취득 후 10년 이내, Consolidator는 5~15년), 재지원 제한 기간 1년 연장 등임

- 해당 계획은 2027년 공모(‘26.7~‘27.6)에 적용될 예정이며, 향후 공모에서도 유사한 제한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

○ 유럽, 과학 분야의 AI 사용과 관련하여 주권과 발전 사이의 균형을 모색(4.21)

- 미국 AI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·데이터 주권에 대한 유럽 측의 우려를 완화하려 일부 시스템 연동 개방 조치를 취하고 있음. 그러나 클라우드 인프라가 여전히 미국 중심이라 한계 존재

- EU 정치권과 연구계는 데이터 통제권은 여전히 미국 영향 아래 있다고 지적하며, 기술 주권과 국제협력의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

○ (기타) ▲집행위 ‘기술연합’, STEM 중심 논란 속 인문사회과학 포용 확대 강조(4.17) ▲헝가리, 총선 결과 호라이즌유럽 참여 금지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상승(4.16) ▲유럽 연구자들의 보이콧으로 이스라엘의 호라이즌유럽 참여 절반으로 감소(4.16)